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5월 미 소비자 심리 최저치로 하락… 물가 우려
- WSJ: 신임 연준 의장, 금리 인상 환경에 압박받아

[미국 금융]
- Reuters: 미 이란 협상 불확실에 달러 6주간 최고치 근접

[뉴욕시]
- Bloomberg: 뉴욕시 해상 페리 인기 끌고 있다

[미국 전쟁]
- CNBC: 미 이란 협상 진전 불구, 우라늄과 호르무즈 이슈로 팽팽
- WSJ: 미 하원, 트럼프 이란 전쟁 권한 제한 표결 철회

[오일]
- YahooFinance: 메모리얼 휴일 앞두고 미 전역 휘발유 4달러 상회

[주택]
- WSJ: 미 모기지율 지난 9개월래 최고치…6.5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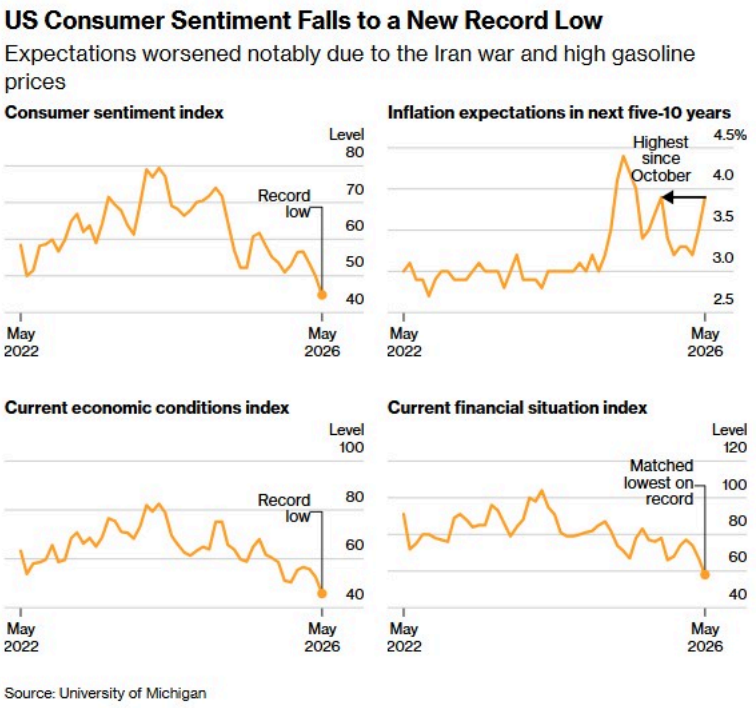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WSJ: 체인 BJ's. 매출 늘어났다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onsumer Sentiment Slides to Record Low on Price Concerns
5월 미 소비자 심리 최저치로 하락… 물가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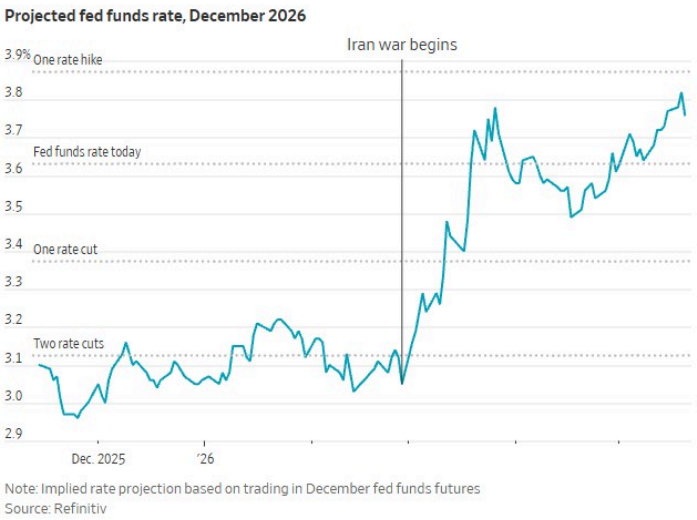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이란 전쟁 여파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으며,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눈에 띄게 악화됐다.
- 오늘 금요일 발표된 미시간대의 5월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는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한 44.8을 기록했다. 이는 앞서 발표된 잠정치인 48.2에 밑도는 수치다.
- 소비자들은 향후 5~10년간 물가가 연간 3.9%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, 이는 전월(3.5%)보다 높아진 7개월 만의 최고치다.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4.8%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.



기사

WSJ: Trump Picked Warsh to Cut Rates. Markets Are Bracing for the Opposite.
신임 연준 의장, 금리 인상 환경에 압박받아

-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낙점했으나,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가 위시 의장의 향후 통화정책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.
- 현재 금융시장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AI 붐이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어, 당초 기대했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.
- 위시 의장은 "오직 경제 데이터와 실질적 수치만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"라며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독립적 노선을 공언했다.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에 대해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.



기사

[미국 금융]

Reuters: Dollar nears six-week high; mixed signals on US-Iran deal feed uncertainty
미 이란 협상 불확실에 달러 6주간 최고치 근접

- 미·이란 평화협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, 달러 가치가 6주 만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.
- 이날 달러 인덱스는 0.17% 오른 99.37을 기록했다. 반면 유로화는 0.2% 떨어진 $1.1594를 나타냈고, 파운드화도 $1.342로 소폭 하락했다.
- 한편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을 두고 대치 중이나, 미 국무장관이 협상의 "긍정적 신호"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키웠다.

기사

[뉴욕시]

Bloomberg: New York City's Hottest Transit Mode Is a Boat
뉴욕시 해상 페리 인기 끌고 있다

- 뉴욕시 전용 페리(NYC Ferry)가 재미있는 SNS 마케팅을 앞세워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.
- 현재 총 38척의 선박을 운영 중인 NYC 페리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은 각각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와 약 200만 개의 '좋아요'를 기록 중이다.
- 이러한 흥행은 팝스타 콘서트 콘셉트 영상이나 자전거와의 속도 대결 등 최신 인터넷 유행을 반영한 쇼츠 콘텐츠 덕분이다. 페리를 친근하게 의인화한 소통 방식이 통하면서, NYC 페리는 뉴욕 시민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인기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. 비용은 편도 4불 50센트



기사

[이란 전쟁]

CNBC: U.S., Iran signal peace progress — but remain at odds over enriched uranium, Strait of Hormuz tolls
미 이란 협상 진전 불구, 우라늄과 호르무즈 이슈로 팽팽

- 미국과 이란이 중동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.

- 그러나 양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.
- 이와 관련해 미 국방장관은 오늘 목요일 기자들과 만나 "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에 찬성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"라고 밝히며 이란 측 요구를 일축했다.

기사

WSJ: House Republicans Pull Vote to Limit Trump's Iran War Powers
미 하원, 트럼프 이란 전쟁 권한 제한 표결 철회

-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행동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을 갑자기 철회했다.
- 당초 민주당은 결의안 통과를 위한 표를 확보했다고 확신했으며,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조치가 될 전망으로 판단했었다.
-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결의한 통과가 트럼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.
- 한편, 상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이 휴회기가 끝난 후 최종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.

기사

[오일]

YahooFinance: Gas prices in all 50 states are sitting above $4 ahead of Memorial Day weekend
메모리얼 휴일 앞두고 미 전역 휘발유 4달러 상회

-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폭등했다.
- 미국자동차협회(AAA)에 따르면 오늘 목요일 기준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$4.56로, 1년 전보다 43%, 한 달 전보다 13% 급등했다.
- 이에 따라 미 50개 주 전역의 기름값이 갤런당 $4를 돌파했다.
- 기름값이 싸기로 유명한 텍사스, 루이지애나 등 산유 지역마저 $4를 넘어섰으며, 세금이 비싼 캘리포니아는 이미 갤런당 $6를 돌파했다.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CNBC: Trump said he'd 'remember' companies that didn't apply for tariff refunds. Many of them are anyway
트럼프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 기업들 관세 환급 신청

- 트럼프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을 "기억하겠다"며 압박했으나, 대다수 미국 대기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급 신청에 나섰다.
- 환급을 신청한 기업에는 월마트, 애플, 나이키, 홈디포, GM, FedEx, 크스트코 등 미국의 간판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.
- 한편 기업 비즈니스 단체와 로비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며, 기업들은 백악관과 고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급금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이다.

기사

[주택]

WSJ: Mortgage Rates Hit a Nine-Month High in Blow to Prime Buying Season
미 모기지율 지난 9개월래 최고치…6.51%

-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 6.51%로 치솟으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, 봄철 주택 시즌의 발목을 잡았다.
- 이처럼 높아진 금리와 고공행진 중인 집값 부담 탓에 많은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
- 한편, 연준 위원들은 이란 전쟁과 유가 급등 여파로 인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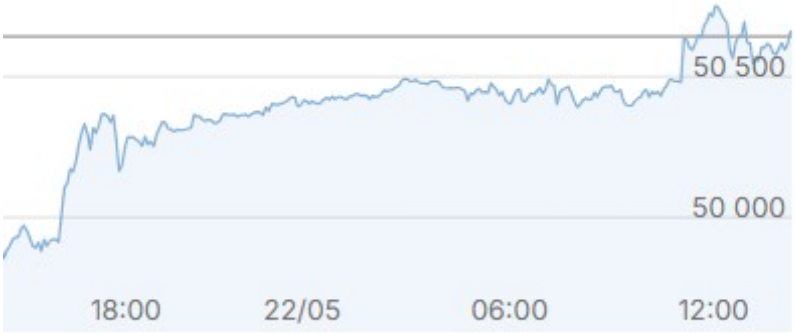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BJ's Wholesale Revenue Rises on Membership Growth
체인 BJ's. 매출 늘어났다

- 미국의 할인 체인점 BJ's는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9.9% 증가한 5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며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.
- 조정 주당순이익(EPS)은 $1.10를 기록해, 시장 전망치였던 $1.03를 웃돌았다.
- BJ's는 또한 올해 전체 실적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. 회사는 연간 조정 주당순이익을 $4.40~$4.60로 예상했으며, 휘발유 판매를 제외한 기존 점포 매출 성장률은 2%~3%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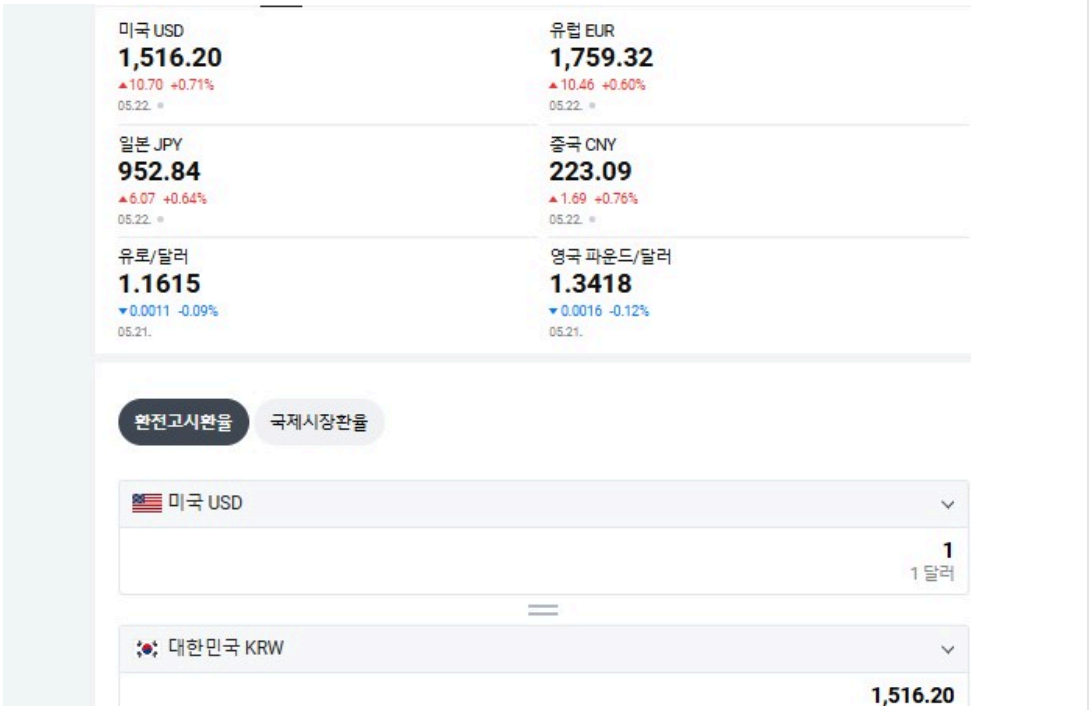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0,689.10	+403.4	+0.80%
US 500	7,493.40	+47.7	+0.64%
Dow Jones	50,670.24	+384.58	+0.76%
S&P 500	7,492.82	+47.10	+0.63%
Nasdaq	26,459.07	+165.97	+0.63%
S&P 500 VIX	16.61	-0.15	-0.89%
Dollar Index	99.265	+0.160	+0.16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1/32	5.088	-0.005
10-Year Note	4.375	-1/32	4.583	0.010
7-Year Note	4.125	-1/32	4.427	0.019
5-Year Note	3.875	-1/32	4.279	0.031
3-Year Note	3.875	-1/32	4.188	0.042
2-Year Note	3.75	-1/32	4.140	0.048
1-Year Bill	0	1/32	3.855	0.041
6-Month Bill	0	1/32	3.768	0.019
3-Month Bill	0	0/32	3.677	0.009
1-Month Bill	0	1/32	3.670	0.026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